

2분기 감염병 이슈

매개 감염병



감염병 소식 | **일본뇌염** Japanese encephalitis [제3급 법정감염병]

올해 첫 '일본뇌염 주의보' 전국 발령!

★ 제주 지역 매개모기 올해 3월 첫 확인(경남 진주 4월)

매개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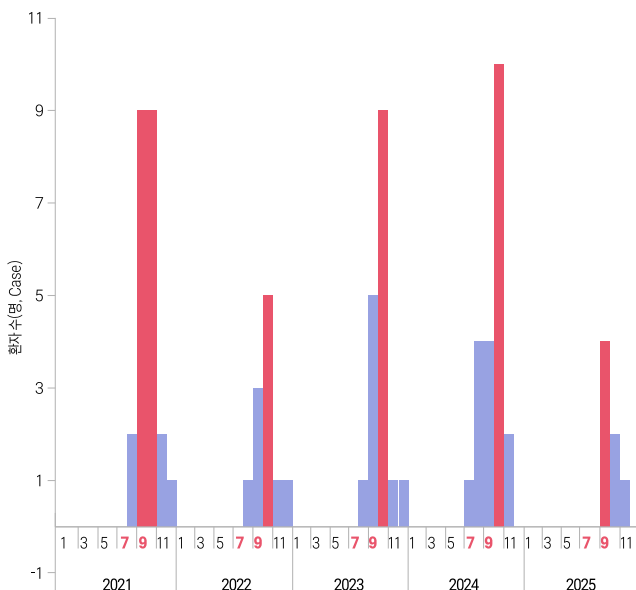
- 매개모기는 '작은빨간집모기'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 및 국내 전역에 분포 (4.5mm 크기, 암갈색)



국내 일본뇌염 환자 및 사망자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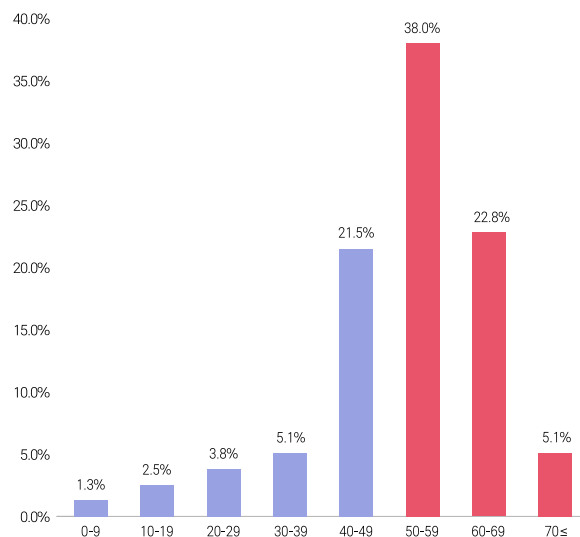
- 3월부터 시작되는 일본뇌염, 8~9월 최고조!

<일본뇌염 연도별·월별 발생 현황(2021~2025)>



- 어르신과 중장년층은 야외활동 시 주의 필요

<일본뇌염 연령별 분포(2021~2025)>



증상

- 대부분 무증상이나 발열, 두통 유발
- 드물게 뇌염 진행 시 고열, 발작, 마비 등 발생(이 중 20~30% 사망 가능성)



치료

- 특이적 치료법 없어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!
- 회복 후에도 30~50%는 신경계 합병증 위험

예방 | 성인 예방접종(유료) 권고

1. 접종 횟수 및 일정

백신종류	접종횟수	접종 일정
불활성화 백신	총 3회	1개월 간격으로 1회, 2차 접종 11개월 후 3차 접종
생백신 (재조합 키메라 바이러스 백신)	총 1회	-

2. 대상자: 과거 일본뇌염 접종 경험이 없는 만18세 이상 성인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

- 논, 돼지 축사 인근 위험 지역 거주자
-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

* 일본뇌염 위험 국가 현황(출국 전 백신 접종 권고)

지역	주요 위험 국가
동남아시아	베트남, 태국, 필리핀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
동아시아	중국, 일본, 대한민국, 대만, 북한
남아시아	인도, 네팔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, 스리랑카
기타 지역	러시아(동유럽), 호주·파푸아뉴기니(오세아니아)

모기물림방지수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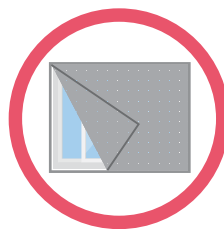
야간 야외활동
자제



밝은색 긴옷
입기



모기 기피제
사용



실내 모기장,
방충망 정비



고인 물(물웅덩이)
제거

감염병 정보 |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, SFTS (제3급 법정감염병)

올해 4월 21일 울산에서 첫 SFTS 환자가 발생!
4~11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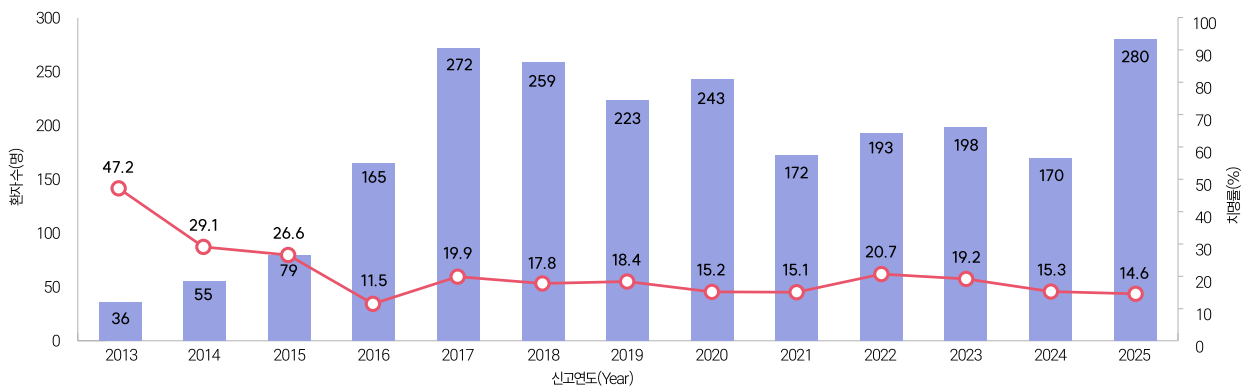
매개체

국내 주요 매개종은 '작은소피참진드기', 현재까지 '개피참진드기', '몽뚝참진드기' 등이 있음

서식 장소

산책로, 등산로, 텃밭, 캠핑장 등 (수풀이 우거진 곳에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에 붙어 흡혈)

연도별 SFTS 환자 수 및 치명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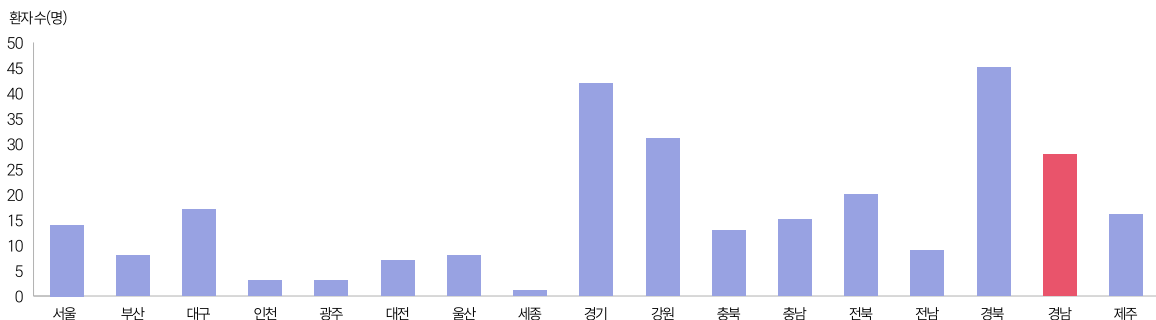


- **성별** 남성이 51.1%(143명), 여성이 48.9%(137명)로 비슷
- **연령** 60세 이상이 81.8%(229명)를 차지
- **주요 임상증상** 발열(87.5%), 오한(31.9%), 근육통(30.1%), 설사(29.4%) 순
- **감염 위험요인** 텃밭 작업·농업(과수업 포함)과 제초 작업(성묘, 벌초 포함)이 가장 많았음

* 시설이나 집 주변 풀밭 산책 시 주의 필요

2025년 지역별 SFTS 환자 수

2025년 지역별 SFTS 환자수에서 경남은 전국 4위를 기록하였음



진드기 예방수칙

특별한 치료제 및 예방접종 없으므로 예방수칙 준수해주세요!

• 작업 및 야외 활동 전



-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긴팔·긴바지, 모자, 장화 등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
-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
-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

• 작업 및 야외 활동 시



-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, 반드시 돛자리 사용
-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
-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

• 작업 및 야외 활동 후



-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, 샤워나 목욕하기
- 머리카락, 귀 주변, 팔 아래, 허리, 무릎 뒤,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

• 진드기에 물렸을 때



- 의료기관 내원 혹은 진드기 제거법으로 제거 후 소독
- 진드기의 SFTS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 거주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민원으로 의뢰 후 보경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수행

진드기 물렸다고 무조건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, 0.5%의 최소 양성률 보임